



민·관 대테러전문가 모여 테러예방·대응 논의

- 12.19(금), 대테러센터 주관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 개최
- 대테러 안전관리체계, 테러대응체계 등 대테러 거버넌스와 대테러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대테러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도 함께 진행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박원호)는 12월 19일(금) 서초 더리버사이드 호텔(서울)에서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관계부처(국정원·경찰·군·소방 등) 등 대테러 관계기관과 학계, 민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대테러 활동의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대테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대테러 업무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대테러활동 우수사례 발표(세션1) ▲대테러 거버넌스 현황진단(세션2)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정부포상 수여식에서는 대테러활동 현장에서 헌신한 일선기관·현장요원 등에 대한 정부 포상 전수가 진행되었다.
- 제1세션 ‘대테러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방청, 한국중부발전, 질병관리청의 대테러활동 사례가 소개되었다.
- 오후에 이어진 제2세션 ‘대테러 거버넌스 현황진단’에서는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와 ‘범정부 테러대응체계’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 이날 대테러센터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의 초국가적·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임을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대테러업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책임자	부 장 윤현주 (02-2100-2032)
		담당자	사무관 이성호 (02-2100-2034)

